

교육 동향

| 엄 준 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jyum94@krivet.re.kr)

▣ 정책 동향

|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학운위와 대학평의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고, 전체 이사진의 1/40이상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

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¹⁾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토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도입(4년중임), 대학평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학교회계 예·결산 사항의 보고 및 공시제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재산권 침해 및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48개교 선정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1월 17일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국 초·중·고등학교 48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직원단체에서 제출한 요구해 온 수업시수 감축방안 및 교원정원증원, 교원업무경감방안,

1)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나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교원양성·연수·승진제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국 초·중·고 48개교 선정
- ②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 1인당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초 20, 중 18, 고 16시간으로 감축. 이를 위해 2006년도에는 교원정원을 전년(5,231명) 대비 215% 증가한 11,250명 증원
- ③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성적 전산 처리, 증명서 발급 및 공문서 관리를 지원할 행정인력 학교당 1~2명 증원 배치
- ④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책무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 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수업시수 감축방안 및 교원정원 증원, 교원업무경감방안, 교원 양성·연수·승진제도 개선 추진 계획 등을 담은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48개를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더불어 그동안 교직원단체에서 요구해왔던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양성·연수·승진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교직원단체에서도 교육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는 있으나 교직원단체에서 연가투쟁을 예고하는 등 시범학교 선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8월에 도출될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공정하게 평가·분석한 후, 그 결과를 놓고 교직원단체,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교육주체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경영전문대학원 육성방안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8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영(금융·물류)전문인력을 국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경영전문대학원 육성 방안'을 마련, 2010년까지 국제 수준의 평가인증을 받은 10개 정도의 경영전문 대학원을 육성하기로 하고 12월부터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경영전문대학원 육성방안은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에 필요한 경영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고급 경영(금융·물류)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해 온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제단체 등의 경영전문대학원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 완화, 수학연한 1년 단축, 도심 강의실 개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폐지하도록 한 조건을 완화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영(금융·물류)전문인력을 국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전문대학원 육성 방안을 발표

세계적 수준의 경영전문대학원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경우, 기업은 국제적 수준의 경영능력을 갖추고 한국적 기업특성에도 밝은 우수 경영전문인력을 국내에서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학비용이나 가사사정 등으로 유학이 어려운 MBA교육 수요자들이 국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MBA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울러, 매년 해외로 나가는 많은 MBA 유학생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도록 하여 유학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부터 월 2회 주5일 수업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월 1회 실시하고 있던 주5일 수업을 2006년 3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2회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보면, 월2회의 토요일업일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사회적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하며, 수업시수는 단위학교가 연 34시간(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한다. 단,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는 감축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하며, 고등학교 2·3학년은 2년간 4단위(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수업의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토요일업일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학교에서 계속 보호하기 위해 토요일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활동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와 긴밀히 협조해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2단계 BK21 사업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17일 2006년부터 7년간 모두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BK21 사업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BK21 2단계 사업은 내년 3월 말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매년 3000억원씩 모두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3대 중점 추진사항은 분야별 대학원의 특성화 유도, 산업협력 활성화, 평가 및 관리체제 혁신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설하며, 1단계 사업의 '선택과 집중'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2단계 사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참여 최소 교수 수 등 대학의 참여 기준을 완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월 1회 실시 중인 현행 주5일 수업제를 2006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 2회 실시한다고 발표

해주는 대신 부진 사업단은 중도에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을 진입시키며 성과에 따라 지원액을 차별화하기로 하였다. 또, 대학의 자체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설될 예정인 고등교육평가원을 통해 해외 석학과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적 상시 평가체제가 이뤄진다. 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경련 등 국내 경제 관련 단체나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신설돼 대학·기업 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도입된다.

사업단 평가나 교수업적평가에서도 특허와 기술이전, 산학공동연구, 협력업체 취업률, 인적교류 등 산학협력 지표 비중이 대폭 강화되고 국내 기업들에 의한 산학협력 펀드 조성 등 산업체 실질적 투자 확대방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 석·박사생이나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60만원 등에 불과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BK21 사업과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번 2단계 사업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의대와 차별화해 지원키로 했다.

이번 2단계 BK21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신설, 선택과 집중 기조의 유지,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교육예산안 편성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식기반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6년도 예산안을 32조 1,023억원(BTL²⁾ 포함)으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안 32조 1,023억원은 올해의 30조 1,144억원(BTL 포함)보다 1조 9,879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6.6%이다.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예산 구성은 고등교육부문 3조 6,178억원(11.3%), 평생·직업교육부문 2,714억원(0.9%),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25조 5,371억원(79.5%), BTL 2조 6,760억원(8.3%) 이다.

〈표1〉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개발 예산안

(억원, %)

부 문 별	2005년 (A)	2006년 (B)	구성비	증 감	
				(C=B-A)	%
합 계	301,144	321,023	100.0	19,879	6.6
(BTL 사업 제외시)	(279,820)	(294,263)		(14,443)	(5.2)
• 고등교육부문	34,633	36,178	11.3	1,545	4.5
- 정책사업비	18,676	19,016	5.9	340	1.8
- 인건비	13,493	14,625	4.6	1,132	8.4
- 기본사업비	2,464	2,537	0.8	73	3.0
• 평생·직업교육	2,594	2,714	0.9	120	4.6
• 유아 및 초·중등	242,593	255,371	79.5	12,778	5.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7,367	248,530	77.4	11,163	4.7
- 정책 사업비	5,226	6,841	2.1	1,615	30.9
• BTL(교육시설)	21,324	26,760	8.3	5,436	25.5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예산 구성은 고등교육부문 3조 6,178억원(11.3%), 평생·직업 교육 부문 2,714억원(0.9%),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25조 5,371억원(79.5%), BTL 2조 6,760억원(8.3%)으로 편성

2) BTL(Build - Transfer - Lease) : 2005년 2조 1,324억원, 2006년 2조 6,760억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원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국가성장력을 향상시키는 근원적 투자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나, 금년도 경제성장률의 하락(5.0%→3.8%), 정부 국채발행 규모(2006년 9조원)에 대한 우려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정부재정 내에서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한 「교육재정확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의 개정이유는 대학 학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자체 발굴·개선하고, 그 동안 소외되어 온 분야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10일 대학 학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자체 발굴·개선하고, 그 동안 소외되어 온 분야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방송·통신대학에서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 복수전공 이수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들의 경우 앞으로는 학사편입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학업중단자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문호를 넓히기로 하였고, 아울러,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앞으로 대학원 진학 시에도 별도정원을 인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은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 사학의 무분별한 남설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25일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신설을 위한 학교건물과 학교용지, 교수 확보 기준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익용기본재산 규모도 새롭게 책정되는 등 대학설립·운영 요건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간 자발적인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영세 사학의 무분별한 남설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 동향

대학 및 기업, 연구소 등 산학연 협약 체결 활발

제천기능대-한일시멘트 직무교육 산학협력 체결

제천기능대학과 한일시멘트(주)는 11월 8일 산학협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천기능대학은 이미 지난 9월부터 한일시멘트 임직원들에 대한 전기시스템 제어 교

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8차에 걸쳐 총 1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06년부터는 전기공업, 전기유압, PLC 등에 대한 초급·중급 교육 등으로 세분해 총 24차에 걸쳐 500여 명을 교육하는 등 연인원 65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우석대-삼익제약 산학협력**

전주 우석대학교 약학대학과 천연 의약품 제조회사인 삼익제약이 11월 10일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의약품 생산기술 및 신제품 연구 개발, 경영진단 및 사원 재교육, 제품의 분석, 성능시험 및 품질평가,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교육, 기술지도 및 교류 등을 하게 된다.

• **진주산업대-GM대우 협력 체결**

진주산업대학교와 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주)가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공헌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11월 17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동차공업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생산 기술의 공동 연구 및 개발, 기계·자동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학생 현장견학·실습, 산업체 임직원의 위탁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충북과학대-(주)돌집이커뮤니케이션 산학협력 협약 체결**

충북과학대학교와 국내 유명 IT업체인 (주)돌집이커뮤니케이션이 11월 21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상호 인력 교류, 공동 교재 개발 및 산학협력위원회 구성 및 참여, 산학협동 교육 실시, 연구개발 기술의 지원 및 연구 활성화,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KAIST, LG화학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협약 체결**

KAIST는 LG화학과 연계해 ‘고분자 정보전자소재 맞춤형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11월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KAIST는 화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을 6년간 총 34명(석사 25명, 박사 9명) 선발하게 된다. 또 LG화학은 교육과정에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과 연구보조금 등 매년 6억 원 이상을 지원해 이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연암공대-LG마이크론, LG실트론 협약

경남 진주 연암공업대학은 11월 13일 LG마이크론(주), (주)LG실트론과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산학협력을 잇따라 맺었다. 앞으로 LG마이크론은 주문식 교육 과정에 따라 양성된 컬러TV 모니터용 새도 마스크(Shadow Mask)생산에 필요한 전문요원 10명씩을, LG실트론은 반도체 필수부품 관리 전문인력 5명씩을 각각 매년 채용한다. 이번 협약으로 LG마이크론과 LG실트론은 연암공대 출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이 대학은 LG계열의 대기업에 매년 15명씩 취업시킬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순천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협약

순천대학교는 11월 1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학·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기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해 학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연간 정보교류를 통한 정보이용의 활성화와 과학의 기반을 구축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양 기관은 학술연구, 교육에 관한 자료의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과제에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간 공동 협력과 정보지원, 연구요원 등의 인적 자원의 상호교류와 학술정보교류도 하게 된다.

• 고려대·부산대·인하대, 델타벨트 협약 체결

고려대, 부산대, 인하대는 산학협력과 실용인재양성을 위해 11월 21일 델타벨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대학은 기술이전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마케팅, 공동창업보육사업, 기술상담기능의 통합 및 대학간 학점 및 학술교류 등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3개 대학은 본 협약 이전에 이미 각 대학의 특허정보의 기술분류작업과 기업체 기술상담을 위한 상담전담교수 분류작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공동기술 이전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건대 충주캠퍼스-충주고 교육협력 협약

건국대 충주캠퍼스와 충주고등학교는 충주지역 우수인재를 고급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의 협력체결은 올해 충주고가 'Nobel 21 과학스타 육성 교실' 운영을 통해 과학영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건대 충주캠퍼스가 각종 실험시설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우수 교수인력의 특강 등 지도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둬 이뤄지게 됐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371개 고등교육기관졸업자 53만여 명(2005년 2월 및 2004년 8월 졸업자)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05년 4월 1일 기준)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5 취업통계 개황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30,417명 중 취업자는 357,09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졸업자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74.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83.7%, 대학은 65.0%로 2004년 대비 각각 6.5%p, 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05 취업통계 개황

(단위: 개, 명, %)

구분	학교수	졸업자수	취업률	취업구분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미상
총괄	360(11)	530,417	74.1	357,093	42,135	6,077	115,873	9,239
전문대학	158	228,336	83.7	177,919	12,221	3,498	31,439	3,259
대학	163(11)	268,833	65.0	154,542	28,652	2,449	77,822	5,368
교육대학	11	5,595	87.8	4,881	16	18	631	49
산업대학	21	27,397	75.3	19,652	1,201	111	5,947	486
각종학교	7	256	47.1	99	45	1	34	7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30,417명 중 취업자는 357,09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졸업자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74.1% 수준

주: 1) 학교수는 조사시점 기준 졸업자가 있는 학교수를 의미함

2) 졸업자 :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

3) 졸업자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입대자수 - 진학자수) × 100

4) 취업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

5) 진학자 = 국내진학자(대학, 대학원) + 국외진학자(대학, 대학원)

6) 미취업자 = 국가고시준비 + 진학준비 + 취업준비 + 기타

7) ()는 분교임, 학교수 전체에는 미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 성별 졸업자 취업률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 졸업자는 75.3%, 여성 졸업자는 72.5%로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2.8%p 높게 나타났다.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문대학 82.7%, 대학 62.3%로 남성에 비하여 각각 2.1%p, 5.4%p 낮게 나타났으며, 2004년과 비교하여 전문대학은 7.1%p, 대학은 8.8%p 증가하였다.

〈표3〉 성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졸업자수		취업률		진학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문 대학	2000	99,452	124,037	81.0	78.2	8.7	5.0
	2001	102,501	130,471	82.7	79.8	8.8	5.7
	2002	103,303	135,811	82.9	79.2	9.3	6.8
	2003	108,087	138,702	82.4	77.7	9.1	7.5
	2004	106,095	120,791	79.1	75.6	7.8	5.6
대학	2000	113,573	100,925	58.6	53.4	14.3	9.7
	2001	127,259	112,443	59.0	54.1	12.6	9.9
	2002	126,879	117,973	62.3	59.1	13.4	10.6
	2003	134,695	123,431	61.6	56.7	13.0	11.1
	2004	135,067	131,991	59.3	53.5	11.8	10.4
	2005	136,593	132,240	67.7	62.3	11.3	10.0

주: 1)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2)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성별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남성졸업자가 75.3%, 여성졸업자는 72.5%로 남성이 여성보다 2.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공별 졸업자 취업률

전공별 졸업자 취업률을 7대 계열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이 89.6%로 가장 높고, 대학은 의약계열이 89.9%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계열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전문대학의 경우 인문계열이 11.2%로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대학은 자연계열 16.9%, 예체능계열 13.4%, 인문계열 13.3%, 공학계열 12.0% 등 4개의 계열에서 진학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계열별 취업률 변동 추이를 보면, 전문대학이나 대학 모두 2004년에 비해 높아졌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의약계열(11.7% 증가), 대학의 경우 예체능계열(13.1% 증가)이 가장 높이 증가하였다.

〈표4〉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단위: %)

학제 및 계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문대학	총계		79.4	81.0	80.7	79.7	77.2	83.7
	인문계열		73.4	74.3	72.6	74.2	71.9	79.3
	사회계열		81.0	82.7	81.7	81.4	79.2	83.9
	교육계열		89.8	89.9	88.8	89.4	87.1	89.6
	공학계열		81.1	82.2	82.2	81.5	78.9	84.5
	자연계열		73.1	76.4	77.8	76.8	74.6	81.4
	의약계열		76.8	78.3	79.5	73.5	72.8	84.5
	예체능계열		76.4	79.1	78.1	76.6	75.2	82.0
대학	총계		56.0	56.7	60.7	59.2	56.4	65.0
	인문계열		50.9	52.2	57.6	56.4	53.0	62.0
	사회계열		54.3	53.9	58.0	55.4	51.7	59.8
	교육계열		54.5	52.4	61.1	59.1	53.7	60.8
	공학계열		59.5	59.7	60.8	60.1	59.1	67.2
	자연계열		49.7	52.4	56.9	55.1	50.4	60.4
	의약계열		88.1	84.8	89.8	87.2	88.4	89.9
	예체능계열		58.9	59.3	64.5	64.4	60.9	7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5년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계열은 교육계열(전문대)과 의약계열(대학)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의약계열(전문대)과 예체능계열(대학)

• 계열별 전공 일치도

계열별 전공일치도는 평균 70.7%이며, 전공일치도가 가장 높은 계열은 전문대학은 교육계열(91.3%)이며, 대학은 의약계열(9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교육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순이며, 대학은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순으로 전공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5〉 계열별 전공일치도

(단위: %)

학제 및 계열	연도	취업률	전공일치도
전문대학	총계	83.7	71.4
	인문계열	79.3	41.4
	사회계열	83.9	66.2
	교육계열	89.6	91.3
	공학계열	84.5	71.1
	자연계열	81.4	63.6
	의약계열	84.5	90.8
	예체능계열	82.0	74.5
대학	총계	65.0	69.9
	인문계열	62.0	49.8
	사회계열	59.8	60.2
	교육계열	60.8	83.1
	공학계열	67.2	78.6
	자연계열	60.4	59.6
	의약계열	89.9	97.5
	예체능계열	74.0	83.6

계열별 전공일치도가 가장 높은 계열은 전문대학이 교육계열(91.3%), 대학이 의약계열(97.5%)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교육비 동향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 전년 동기 대비 7.2%p 증가 |

2005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 총액은 210만8천원,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29만4천원, 가구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은 14.0%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가 증가하였고, 교육비 지출 역시 6.4%가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교육비는 같은 기간 동안 27만6천원에서 29만4천원으로 1만8천원이 증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월평균 총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서 전년 동기의 2.5%보다 3.9%p 증가하였다.

2005년 3/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10만8천원이며, 이 중 교육비는 29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가 증가

〈표6〉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소비지출 총액	1,869	1,940	1,932	2,107	1,931	2,040	1,995	2,187	1,993	2,108
교육비 지출	184(9.8)	270(13.9)	187(9.7)	303(14.4)	184(9.5)	276(13.5)	180(9.0)	302(13.8)	189(16.7)	294(14.0)
증가율	14.0	11.1	20.0	18.3	0.0	2.5	-3.4	-0.1	3.0	6.4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 (<http://kosis.nso.go.kr/>)

| 교육비 내역별 지출, 보충교육비만이 유일하게 증가 |

교육비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보충교육비로 13만9천원에서 15만9천으로 14.8%가 증가, 전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납입금과 교재비(교과서 및 참고서)는 각각 1.4%, 8.8%씩 감소하였고, 문방구비가 9.6% 감소하여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

(단위: 천원, %)

	2003 3/4			2004 3/4			2005 3/4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교육비 총액	269.6	100.0	11.1	276.4	100.0	2.5	294.2	100.0	6.4
- 납입금	122.9	45.6	4.6	125.5	45.4	2.1	123.8	42.1	-1.4
- 교재비	15.0	5.6	-43.2	8.7	3.1	-42.1	7.9	2.7	-8.8
- 보충교육비	128.1	47.5	33.7	139.1	50.3	8.6	159.6	54.3	14.8
- 문방구	3.6	1.4	16.4	3.2	1.2	-12.4	2.9	1.0	-9.6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 (<http://kosis.nso.go.kr/>)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보충교육비로 14.8%가 증가,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으로 나타남

|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사무직 가구의 지출 큰 폭 증가 |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근로자 가구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27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생산직 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5.2%가 증가하였고, 사무직 가구는 11.4%가 증가하여 전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근로자외 가구는 27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하였는데, 자영자 가구와 무직 가구 모두 각각 3.8%, 9.9%씩 증가하였다. 특히, 무직 가구의 월

평균 교육비는 2004년 2/4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8〉 가구당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단위: 천원, %)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가율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가구 평균	248.5	174.4	282.2	172.4	255.5	169.2	282.2	179.5	272.3	6.6
근로자 가구	241.7	174.5	280.3	177.1	251.6	172.7	295.2	181.5	273.0	8.5
사무직	312.4	244.0	363.7	250.4	327.6	250.6	380.6	254.0	364.9	11.4
생산직	188.5	122.8	217.8	122.3	194.6	116.1	231.2	128.1	204.7	5.2
근로자외 가구	257.6	174.1	284.8	166.0	260.7	164.5	265.4	176.8	271.5	4.1
자영자	310.3	212.7	338.2	206.6	318.8	204.5	321.4	220.2	330.7	3.8
무직	144.6	88.3	169.7	73.4	137.0	76.9	150.5	82.9	150.5	9.9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근로자 가구 중 사무직 가구의
증가가 특징적

주: 1) "전가구평균≠근로자 가구+근로자외 가구, 근로자가구≠사무직+생산직, 근로자외≠자영자+무직"인 이유는 각 직종별 가구에 대한 가구수, 지역 등의 종합가중치 적용에서 기인하는 것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 (<http://kosis.nso.go.kr/>).